

세명의 정율성...예술 열정은 하나



10~12일 광주문예회관 연극 '정율성'...3명의 자아 연기 송정우·김성관·이영환씨

아나운서가 된 방청객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체험프로그램 신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배승수)는 '따르릉 퀴즈! 쇼쇼쇼', '우리동네 영화관', '보이는 라디오' 등 미디어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해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신설된 미디어체험 프로그램은 수동적인 체험형식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따르릉 퀴즈! 쇼쇼쇼'는 참가자들이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내용 퀴즈를 풀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미디어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우리동네 영화관'에 참가한 개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영화 시나리오로 재구성해 5분 분량 영상물로 만들게 된다.

'보이는 라디오'는 참가자들이 방청객과 아나운서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최근 방송에서 활용되는 방송형태를 체험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달하는 '톡톡톡', 방송관련 업무를 체험하는 '꿈찾는 뉴스' 등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소년 정부은역 김성관

혁명 청년 성장기 캐릭터 고심
적박했던 삶 음악 외길 인상적

정부는, 황정해, 그리고 정율성(1914~1976).

수차례 바뀐 이름 만큼이나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광주 양림동에서 태어나 송일중에서 밴드부 활동을 하며 음악과 진속했던 어린 정부는, 항일투쟁을 위해 상하이로 떠나 의열단으로 활동했던 황정해, 중국 혁명을 통해 조선 독립을 이루겠다는 신념을 품고 작곡가로 활동한 정율성.

3일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운모)이 광주 100년사 시리즈 두번째 작품으로 준비중인 '정율성' 연습 현장을 찾았다. 올해 새롭게 등장하는 광주문예회관 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진행중인 현장은 박해선 연출의 지휘 아래 10여명의 출연배우들과 공연 스태프들의 열기가 넘쳤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해무'의 김민정 작가가 극본을 쓴 '정율성'은 음악극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율성 음악감독은 '연안송' 등 정율성의 대표곡들을 편곡하고, 한국적 정서가 담긴 '헤이요', '다시 만난 날' 등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번 작품에서는 3명의 정율성이 등장,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세 명의 자아는 흔들리고, 혼란스러웠던 삶을 '거울'에 비추듯, 서로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노년의 정율성 역을 맡은 송정우(43), 황정해 역의 이영환(31), 정부은 역의 김성관(30)씨를 만났다. 오디션을 통해 주역으로 발탁된 세 사람은 이어 달리기틀을 하듯 인간 '정율성'을 함께 만들어나간다.

"소년 정율성이 음악 청년으로 성장해나가고, 음악으로 혁명을 꿈꾸는 과정 등을 하나하나 잘 쌓아나가기야 했다.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노년 정율성역 송정우

음악으로 개혁을 꿈 꿔던 그의 삶
연극으로 자아성찰 삼는 내 모습 봐

정년, 장년의 정율성에게 남겨주는 게 필요하다."(김성관)

"배역이 나눠져 있어 에너지를 배분할 수 있는 점은 좀 편한데 에너지를 이어 받기 위해서 늘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 서로 좋은 기운을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송정우)

정율성은 '연안송', '팔로군가' 등을 만들어 '중국 3대 현대 작곡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조선은 나를 중국 사람으로 여기고, 중국은 나를 조선 사람으로 여긴다"고 말했듯 늘 경계인의 삶을 살아야 했고, 문화대혁명 시기 남조선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채 모든 음악활동을 금지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민중을 위한 노래, 일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만들었던 정율성의 삶이 인상적이다. 문화에 솔혁명 때 자기 예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송두리째 부정당했을 때의 비참함도 마음 아프다. 극의 마지막에서 그래도 음악과 함께했던 세월을 돌아보며 사는 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음에 남는다."(송정우)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하고 싶은 음악을 통해 한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혁명적 이미지의 모습 속에 감춰진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점도 좋고, 세 명의 자아가 만나는 장면에서는 정화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김성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나을 삶을 위



정율성

청년 황정해역 이영환

연기 외에 노래는 또 다른 도전
민중 향한 희생적 삶 깊은 감동

해서 한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이영환)

노래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에게 노래는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정서와 스토리까지 함께 담아내야 하는 게 힘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로 연기 생활 25년째를 맞는 송 씨는 정율성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고 했다.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했던 그의 삶에서, 연극이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희망이 보여서다.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조대 극회에서 활동한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극단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광주연극제에서 신인연기상도 수상했다. 김 씨는 전대 일문과 출신으로 전대극회에서 활동했으며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등에서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송씨와 황씨는 '햄릿'을, 김 씨는 '우먼 인 블랙'과 '프랑켄슈타인'을 꼭 연기하고 싶은 작품으로 꼽았다.

이번 작품에서는 특히 젊은 배우들이 대거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끈다. 주역 배우들을 포함해 1인 다역을 맡은 배우들은 역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내며 극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중국 여장교였던 아내 정설송과의 사랑 이야기를 비롯해 김산, 남영일 등 친숙한 인물들의 등장도 반갑다. 공연 현장에서는 바이올린의 양은혜 씨 등 6인조 앙상블이 라이브 연주를 맡는다.

'정율성'은 오는 10~11일 오후 4시~7시30분, 12일 오후 4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판소리 '강산제 심청가'

광주문화재단 9일 목요상설무대

명창 김향순·고수에 추정남 선생



광주문화재단은 9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남구 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2015 목요상설무대' 두 번째 작품으로 김향순(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이수자)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발표회'를 선보인다.

판소리 '강산제 심청가'는 정응민 명창(1896-1964년)에 의해 화려한 사설이 가미된 소리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향순 명창이 효녀 심청이 인당수에 팔려가는 대목까지 들려주며, 고수에는 추정남(전남무형문화재 제29호 판소리 고법보유자) 선생이 맡는다.

김향순 명창은 화순출생으로 현재 김향순 국악연구소 원장, (사)화순국악진흥회 이사장, 전라남도립국악단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공연은 7세 이상 관람 가능하고, 전석 무료. 한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에 열리는 목요상설무대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누구나 관람가능하다. 오는 16일 목요상설무대는 극단 각지의 '기억의 길'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62-670-794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린 전망과 내치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팀만 예식!!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